

괴질 '사스(SARS)' 퇴치에

국내 바이오벤처 앞장서

중국 괴질 '사스(SARS)'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전 세계 각국이 불안에 휩싸여 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으로 불리는 괴질은 38°C 이상의 높은 열과 함께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괴질의 원인 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추정되며 공기 중에 자유롭게 떠다니며 감염자가 재채기할 때 나오는 물질이 묻어 있거나 감염자가 단순히 만진 물건을 통해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고, 뚜렷한 치료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남부 광둥(廣東)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괴질은 홍콩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괴질에 감염된 환자 수가 3월 말 현재 1,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58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홍콩위생서가 밝혔다. 세계 보건기구도 괴질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건강상 위협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국립보건원도 괴질관리지침을 발표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주의하도록 했고 발병국가의 입국지는 공항과 항구에서 별도의 검역 절차를 밝게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자 항공업체는 직격탄을 맞았고, 중국 수출이 많은 전자업계는 울상이 되었다. IT업계의 재고가 증가하고 중국 바이어의 주문취소가 잇따랐다. 사스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자 중국 사스 퇴치에 앞장서 사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는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바이오벤처 선두 업체인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는 지난 4월 초 중국 국책의료기관인 중국질병예방센터(CDC, Chines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로부터 "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와 바이러스 멸균 시스템을 공급할 수 없느냐"는 SOS 요청을 받았다.

바이오니아 연구진들은 5월 초에 중국 CDC를 방문,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바이러스 멸균 시스템, 진단 및 검출 키트, 이동진단 실험실용 차량 등을 기증하고 본격적인 사스 관련 효과테스트에 돌입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진단키트는 하루이상 걸리는 유전자증폭(PCR)을 단 2시간만에 끝낼 수 있는 것. 이 키트를 이용하면 사스 환자의 콧물이나 타액만으로 수시간 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진단시약 전문기업인 에스디는 미국서 공개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사스 항체진단키트를 개발, 식약청에 제조 및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환자의 혈액에 있는 항체와 결합해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 사스 감염 여부를 3~10분 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시약청에서 허가를 받는 대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조영식 사장은 말했다.

인바이오넷(대표 구분탁)은 6월 초 대만 쿠오칭(Kuo-Ching)사에 3억 8400만 원 규모의 사스 진단용 DNA칩을 공급기로 했다. 회사측은 지노믹트리아의 사스 진단용 DNA칩을 대만의 쿠오칭 사에 판매하는 계약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 기업인 엔바이오테크놀로지 문원국 사장은 최근 면역 강화제 이스트글루칸을 내놓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 달 사이에 이스트글루칸만 2억 원어치를 팔았다. 사스 여파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면역력 강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때문이다.

씨티시 바이오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사스 원인균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억제물질을 공동개발기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물질은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을 70~90% 억제할 수 있는 천연물로, 약품으로 개발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균소재 전문 업체인 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대표 문용식)는 최근 자체 개발한 살균 소독제 바이오크린액트 160만 달러 어치(220ml 짜리 1백만 병)를 대만 의료용품 업체인 석세스메티컬에 수출한다고 했다. 이 회사는 바이오크린액트에 대해 지난해 12월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첨가물허가를 받았으며 한국화학산업연구원의 전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 효과를 인정받았다.

바이오리더스(대표 성문희)와 엠디랩(대표 김철중)은 사스 바이러스 항원을 식용 유산균 표면에 나타나도록 해 유산균을 이용함으로써 체내에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식용 유산균 표면에서 사스 바이러스 항원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작용 없이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성문희 대표는 "임상실험을 거쳐 늦어도 3년이면 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리:한국바이오벤처협회 배형석 사무처장)